



左二三cm의 四角形板石前面에 浮刻되었다.

本尊은 剃髮이며 肉髻는 比較的 적은 便이고 面相은 豐滿하다. 눈은 正眼正視, 口唇이나 턱은 瑞山 泰安磨崖佛과 類似하다. 兩耳는 짧고 頸部가 긴 편인데 三道가 보이지 않는다. 兩肩은 넓게 가로 퍼졌고 法衣는 通肩이고 手印은 左手는 與願印 右手는 腹前에서 內掌하고 있다. 衣文은 左手 밑에서 넓은 幅으로 한가닥 衣端이 내리지고 다시 左手 밑에서, 右下部로 斜線을 그리며 陰刻線이 三條있어 옷주름을 表示하였고 下端은 턱이 저서 水平으로 굽어져 있다. 大體로 두꺼워서 肉體의 表現은 全然無視되었다. 左脇侍菩薩은 三面冠을 썼고 面相豐滿하나 若干 긴 얼굴이다 胸前에 짧은 瓔珞이 드리워 있고 두 손으로는 쿠깃을 들고 있는 듯한 데 똑똑하지 않다.

右脇侍菩薩의 面相이나 胸前의 瓔珞은 左脇侍나 같은데 두 손은 앞에 모아 合掌하고 있다. 兩脇侍菩薩의 衣紋은 매우 稀微하여 刻線이 明瞭하지 않다. 다만 두꺼운 法衣나 그 下端이 水平으로 굽어져 있는 點은 本尊과 같다.

光背는 三尊 모두 頭光 뿐인데 本尊은 圓形이고 兩脇侍는 寶珠形이다. 本尊頭光은 二重圓으로 內圓에는 蓮花文이 있고 外圓에는 小圓이 陽刻 連續되어 連珠文을 擴大한 것 같다. 脇侍菩薩의 光背안에는 文樣이 있는

月에야 現地를 調査할 機會가 있었다. 龍山 장터에서 앞은 고개 하나를 넘으면 新項里部 落이 되는데 이 三尊石像은 部落入口 約 三m 되는 언덕에 南向하고 서 있는 데 높이 二·二八m 幅 一·六m 厚 向右 一〇cm, 向

듯이 보이나 刻線이 不分明하다. 한 가지 注意되는 것은 兩脇侍 上部 空 間에도 彫刻이 있는 듯이 보여지는 點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하 지 않으나 或 飛天 或은 化佛이나 아닌가도 생각된다.

前面 右脇侍 上部에 板石 右端에서 本尊光背에 이르는 長 四〇cm, 幅 六cm 深 三cm의 凹線이 있고 板石 後面에도 現 地面에서 八五cm 높이에 가로 長 一四六cm의 陰刻線 二條를 幅 八cm의 사이를 두고 파았으나 이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 나라에 石造三尊像이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이 三尊像은 그 中에 서도 比較的 高古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面相, 衣紋處理, 手印, 光背文 樣等 오랜 樣式을 보이고 있어 그 製作年代가 八世紀以後로 떨어져 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板石 下部가 埋沒되어 足部나 臺石의 有無等을 알 수 없으나 埋沒된 部分의 發掘과 同時에 保存對策이 必要할 까 한다.

實測值는

	身高	頭高	肩幅	頭光徑
本尊	一九六cm	四三cm	六〇cm	八二cm
左脇侍	一三六cm	三一·五cm	三三cm	四四·五cm(高)
右脇侍	一四八cm	三一cm	三三cm	四四cm(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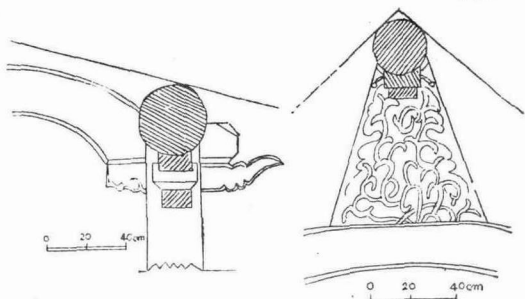
懷德의 雙淸堂

李 殷 昌

忠淸南道 大德郡 懷德面 宋村里 白達洞 雙淸堂은 朝鮮初 縣人 宋愷가 建立한 건물로 現在 十九代宗孫 宋寅昌氏가 守護하고 있는 바 調査할 機會가 있어 그 概略을 紹介하고자 한다.

二

自然石을 若干 加工한 長方形 石材를 積쳐 놓아 낮은 築臺를 이 루고 그 위에 方形礎石(後面 西北隅礎石은 二重圓形)을 놓고 方柱를 세



東側中間柱

宗樑 및 台工

臺工을 놓아 宗道里를 엮었다. 서까래는 長椽을 길게 뽑아 훑쳐마루 하고 天井은 샅샅 天井을 하였다.

左東四間은 大廳, 右西二間은 溫突房이고 大廳 前面二間에는 各各四分閣의 扉살문을 달았으며 側面二間은 各各 소슬童子와 머름청판으로 造成된 淸麗한 머름중방에 四分閣 扉살문이 달렸고 後面 各間에는 머름중방에 兩開骨 板門을 달았으며 바닥은 마루를 깔았다. 溫突房의 前面은 머름중방에 扉살문 雙窓을 設하고 側面은 各間에 扉살문 單窓이 달렸으며 後面은 벽장으로 되고 溫突房과 大廳 사이는 四分閣의 井字살문을 달았으며 天井은 우물 天井으로 짜인 바 小欄을 넣어 층이를 바르게 하였다. 大廳의 四分閣 扉살문·骨板門等은 後補이나 그 手法는 舊制를 그대로 維持하였고 溫突房의 窓門等에서는 木材를 다룬 솜씨 등 高古한 氣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特別히 白色灰壁과 暗褐色 木材와의 調和가 淡素한 맛을 준다.

宗마루·合閣마루·春舌마루의 짜임새 卽니 左右의 扇子椽의 모습·四

위 팔작집을 形成하였다. 前面下枋밖으로 三間을 건너지른 素朴한 쪽마루가 있고 쪽마루 아래 長方形의 디딤돌이 놓여 築臺에 올라서서 디딤돌을 딛고 쪽마루를 거쳐 房이나 大廳에 들어 가도록 하는 意匠을 보였다. 貢包는 初

翼工이나 道里만 淸華盤은 없으며 대들보는 素朴한 樑棒으로 받도록 되었으며 대들보에 직접 柱心道里를 얹게 하였다. 대들보 中央에는 兩側面 中間柱로부터 휘어 오르는 衝樑이 걸쳐있고 대들보 위에 儉素한 童子柱가 있어 중도리를 받도록 하고 宗樑에 波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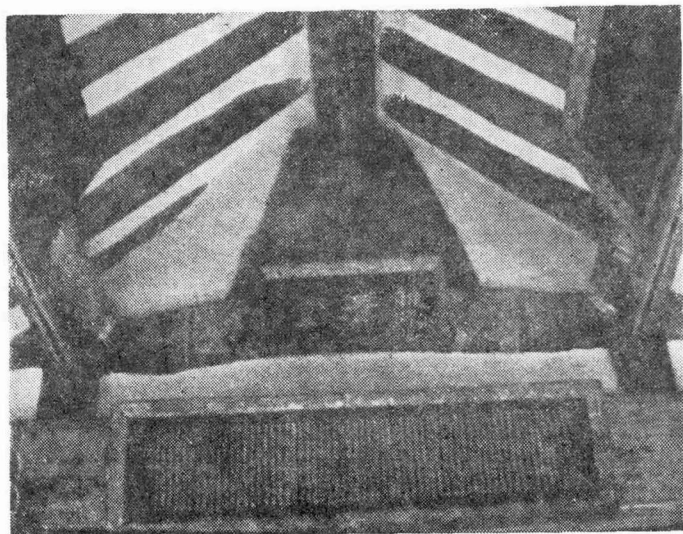
隅角에 잘모산방을 適切히 받쳐 檐下의 反轉을 잡은 表現等은 一見하여 멋진 曲線美에 輕快한 느낌을 준다.

雙淸堂의 構造는 住宅樣式으로서 李朝時代의 淸雅한 民家風을 보이는 것인 바 特別히 丹青을 加한데 注目이 된다. 더구나 柱心道里 위로만 丹青을 하고 各柱·下枋·窓門等 建物下部는 丹青이 되어 있지 않아 疑問이 되는 데 이는 丹青當初부터 그러하지 또는 後代에 建物下部의 部材가 바뀌었는지 仔細한 것을 모르겠다.

三

雙淸堂의 來歷을 傳하는 記錄을 通하여 잠깐 알아 보기로 한다. 가장 오래된 記錄은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懷德縣 樓亭條에 보이는 朴彭年의 雙淸堂記이니 그 가운데

「……其縣曰 忠淸之懷德, 里曰 白達, 構祠堂於居第之東, 以供祭祀之需, 乃於祠東 別立堂凡七間, 堦其中以宜冬, 而石關之者三, 豁其軒以宜夏, 而左關之者三, 庖廚滷浴藏祭器各有所, 丹碧繚垣, 華而不侈, 每時祀與忌日, 公必衣深衣, 入其堂以齋, 克敬克誠, 凡所致享, 皆遵禮經, 且值佳節, 必置酒邀客, 或詩或歌, 以洽



鄉黨之歡……中略……中樞朴公塿。扁其堂曰雙清、云云」

하였다. 이 記錄의 「別立堂凡七間」이 바로 이 雙清堂인즉 「堦其中以宜冬」과 「豁其軒以宜夏」는 現在의 西側 溫突房과 東側 大廳의 構造와 相通되는 것 같고 「中樞朴公塿 扁其堂曰雙清」은 蘭溪 朴塿이 雙清堂이라 扁額한 것이니 宋愉의 號가 곧 雙清堂이며 「且值佳節 必置酒邀客 或詩或歌 云云」한 것은 往時에 置酒遊客으로 或詩或歌하던 習을 말한 것이다.

雙清堂內에는 萬曆四十四年 丙辰 暮春之初에 後裔 八十老人 柀壽의 敬識으로 된 雙清堂重修顛末記의 懸板이 걸려 있으니 萬曆四十四年 丙辰은 光海主八年(一六一六)인 바 이 記錄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①「嘉靖甲申、祖考肯構而重新之 訥齋朴公爲之記」라 한 句節로 中宗十九年(一五二四)의 重修가 있어 訥齋朴祥의 記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②「嘉靖癸亥、余又就舊制、而加葺之 樓棟礎砌各正其位、而華彩則有加焉」라 한 句節로 明宗十八年(一五六三)의 舊制를 就하여 加葺한 重修가 있었음을 알겠으며 ③「不幸壬辰島夷猖獗連陷三都、退據南陞始然有再動之虞于斯時也、余出守通川郡、竊念此堂難免兵火、深慎諸賢之作泯沒而無傳、令家豚希建階書懸板袖來通川藏于篋笥、逮于丁酉剪焉、傾覆瓦礫荒墟□榛慘目可豚痛哉、舊祠堂亂後歸然於此堂之□ 庚子建于西阜之上今也、賴一門諸賢之助 雖未能盡復舊制堂宇粗成 云云」한 바로 壬辰 丁酉兵亂에 傾覆褪落되어 重修가 있었는데 亦是 舊制를 復原하기에 努力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雙清堂內에는 懸板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中には 末尾에 「崇禎後八十年 戊子六月 日 雙清府君九代孫 前大提學相琦謹記 九代孫 謂弼書」라 한 「雙清堂重修記」가 있고 또 「崇禎五周 戊子 十月 日 十六代孫 大臣輔國崇祿大夫 領中○○謹記 十七代孫 敦淳謹書」라 한 「雙清堂重修記」가 있다. 前者는 肅宗三十四年(一七〇八)에 重修한 것으로 記錄中에 「面背左右一遵舊制母敢變易、堦其西者二間、軒其東者四間、而軒之廣礎之高視舊皆制、又一華彩藻飾則不超過之矣」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舊制를 變更하지 않았음을 알겠고 또 當時의 制度와 現在의 面貌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後者는 高宗二十五年(一八一八)의 重修인 바 이

와 같은 重修를 거쳐 現今에 이르고 있다.

四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이 雙清堂은 累次의 重修가 거듭 되어 왔음으로 創立當初의 制度와 그 部材가 많이 變動되었을 것이나 重修때마다 舊制를 固守復原하기에 努力하였던 모양이니 創立當時의 傳統이 維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現存하는 遺貌로 보아서 李朝中葉(壬辰直後)의 重修모습을 傳하는 建物로 推定된다. 같은 洞리에 있는 寶物(一〇九號 同春堂 ①과 松崖堂 ②) 등도 雙清堂의 建築樣式을 踏襲한 것으로 이들은 李朝住宅建築研究의 唯一한 資料이다. 三者가 建築樣式도 同一系統을 하였지만 主人公의 雅號를 堂名으로 한 것도 同一하다. 그리고 雙清堂은 同春堂이나 松崖堂에 比하여 古色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던가 또 는 精巧한 手法이 보이는 것 등은 더욱 重要視되어야 할 資料라 하겠다.

註

- ① 國寶圖錄卷六 楮 목조 건물편 圖版二八 同解說參照
- ② 松崖堂은 宋柀壽의 外孫 金慶餘가 建立한 것으로 懷德面中里(白達村)에 現存하는 것이니 그 制度와 建築樣式은 雙清堂·同春堂 등과 같다. (仁祖年間建立)

韓日通商條約調印祝宴圖

崔 淳 雨

高宗二十年(一八八三)六月二十二日、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을 全權으로 하는 協辦交涉通商事務 金弘集、同 穆麟德(Paul Georg Möllendorff) — 獨人)等 朝鮮側 代表와 辨理公使 竹添進一郎을 全權으로 하는 日本側 代表와의 사이에 協商해오던 韓日通商章程 및 海關稅目을 비롯한 數個 約條를 調印하게 되었다. 이날 調印을 끝낸 朝鮮側 全權 閔泳穆은、儀禮上 이 條約 交涉에 參與했던 兩國의 官吏들을 招待해서 晚餐會를 여럿음